

GS, CVC 전문사 'GS벤처스' 출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국내 첫 지주회사 CVC 설립
초대 대표에 허준영 GS 부사장
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발굴·투자



허준영 GS벤처스 대표

국내 지주회사 최초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인 'GS벤처스'가 출범했다.

GS는 7일 CVC전문회사인 GS벤처스를 설립해 본격적인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9일 밝혔다. GS벤처스는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가 자본금 1백억원을 전액 출자해 지분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로서 본점의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다.

GS벤처스의 투자 대상은 국내를 중심으로 하며, 바이오/기후변화대응/자원순환/유통/신에너지 등 GS그룹이 신성장 분야로 꼽고 있는 영역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초기 설립 및 자금 유치 단계의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후 단계에 대한 투자는 ㈜GS와 각 계열사와 협력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향후 GS벤처스는 투자 및 위험관리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취득하는 대로 펀드를 결성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허가 취득 후 GS벤처스가 결성하게 될 펀드에는 ㈜GS와 GS의 주요 계열사들이 출자자로 나서 투자의 시너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GS벤처스 초대 대표는 지난 연말 GS 임원인사에서 ㈜GS CVC팀장으로 외부 영입하였던 허준영 부사장이 맡는다. 허준영 대표는 미래에셋 글로벌투자부문과 UBS뉴욕본사 등에서 국제적인 기업인수합병을 이끌어온 투자전문가다. 특히, 최근 토종 유니

콘 하이퍼커넥트의 CFO를 역임하면서 1조9000억원 가치로 매각에 성공하며 벤처 투자업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다.

GS는 이미 2020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CVC해외법인인 GS벤처스를 출범시켜 해외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GS벤처스의 설립으로 GS그룹은 국내외에 각각 CVC 자회사를 두고 국내외 스타트업에 전문적인 투자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

이번 GS벤처스의 설립은 지주회사의 국내 첫 CVC라는 의미도 있다. 국내 법 상으로 그 동안 지주회사의 산하에 금융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둘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벤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GS벤처스의 설립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가진 기업 집단의 CVC 설립이 이어지면서 국내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와 대기업의 신성장 협업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알지?” 앱으로 환경보호 실천하세요

LG화학은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기부 챌린지 애플리케이션 ‘알지?’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알지는 '제로를 위해 반응하자'(React to Zero, RZ)의 줄임말로,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 환경문제 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함께 반응하고 행동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LG화학 직원들이 '알지?'를 선보이고 있다. /LG화학

SK, 美 CBM 3.5억弗 투자... 2대 주주 등극

글로벌 CGT CDMO 사업 가속

SK(주)가 글로벌 선도 세포·유전자 치료제 CDMO를 향한 도약을 가속화한다.

SK(주)는 SK팜테코를 통해 미국 CBM사에 3억5000만달러를 투자, 2대주주로 올라섰다고 9일 밝혔다.

CBM은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CDMO다. CGT 핵심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 디자인·생산부터 바이러스 벡터 생산, 세포주 생산, 세포 처리, 분석 시험 및 최종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핵심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플라스미드는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물질로 이용되며 코로나 백신을 위한 mRNA의 주원료로 최근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CGT는 유전자 및 세포 주입을 통한 혁신적 개인 맞춤형 치료제다. 유전 결함으로 발병하는 희귀 질환을 1~2회 유전자 주입으로 완치 수준에 이르게 하는 효능으로, 글로벌 컨설팅업체 딜로이트 등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평균 25%의 높은 시장 성장세가 기대된다. 앞서 SK(주)는 지난해 3월 프랑스 CGT 이포스케시를 인수한 바 있다.

SK(주)는 이번 CBM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주요 의약품 시장에서 합성 바이오 신약과 혁신 바이오 신약 모두를 생산하는 글로벌 선도 CDMO로의 목표에 한층 가까이가게 됐다. 합성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유럽·한국을 잇는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매출액 기준 글로벌 탑 5 CDMO로 자리잡았다.

CBM은 글로벌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까지 70만 평방피트(약 2만평) 규모의 세계 최대 CGT 생산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관련 전문인력도 향후 4년간 2000여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CBM이 미국 내 유일한 CGT 특화 바이오클러스터인 필라델피아 셀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또한 빠른 사업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셀리콘밸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유전자치료, 줄기세포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성한 특화지역으로, 100여개의 대학과 병원, 1700여개의 제약사, 7만여명의 전문가가 집결해 있어 고객 확보, 인력 유치 등 CGT 사업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김재욱 기자 juk@

LGU+,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 강화

콘텐츠·플랫폼사업단 전문인력 영입
메타버스 등 신사업 생태계 조성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역량 강화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콘텐츠·플랫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별도의 조직인 '콘텐츠·플랫폼사업단'에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고 9일 다.

지난 연말 인사개편을 단행한 LG유플러스는 CJ ENM, HYBE 등을 거친 이상진 상무를 콘텐츠·플랫폼사업단 산하 콘텐츠사업담당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엔 이덕재 전 포디리플레이(4DREPLAY) 콘텐츠 본부장을 최고 콘텐츠책임자(CCO) 겸 콘텐츠·플랫폼 사업단장(전무)으로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무는 약 26년간 방송제작, 콘텐츠 사업 전략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디어 콘텐츠 분야 최고 전문가다. 이 전무는 tvN 본부장을 거쳐 CJ ENM 미디어 콘텐츠부문 대표, CJ ENM 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했다. 포디리플레이에서는 콘텐츠 본부장을 맡아 영상 기술과 결합한 신규 콘텐츠 제작을 주도한 바 있다.

이 전무는 콘텐츠·플랫폼사업단장 겸 CCO로서 XR, 아이돌Live, 스포츠, 스마트홈 등을 포괄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플랫폼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등 LG유플러스의 콘텐츠·플랫폼 사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IP와 콘텐츠 기획 제

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와 제휴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콘텐츠·플랫폼사업단 인력 운영규모를 전년 대비 150%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 여행 등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XR 사업 ▲프로야구, 골프 등 팬들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스포츠 사업 ▲클라우드 게임, 홈트 등 코로나19 시대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사업 등 기존 플랫폼 강화는 물론 ▲메타버스, NFT 등 지난해 대폭 성장한 신사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K콘텐츠·K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채윤정 기자 echo@

KT,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유튜브 1000만뷰

ABC 기술 실적용 사례 눈길

KT는 최근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광고를 송출한지 한 달여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0만뷰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광고는 KT의 ABC(AI, Bigdata, Cloud) 기술을 통해 고객들의 삶의 변화와 실제 도움이 된 사례를 고객의 목소리로 진솔하게 담을 수 있게 제작했다. 지난 30일에 공개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광고는 전주시에 위치한 식당 '1964 급이정'에서 음식 조리부터 서빙까지 일당백 역할을 하는 사장님의 하루를 다



'급이정'편 광고 스틸컷 장면. /KT

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려냈다.

지난 12월초,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광고 캠페인으로 가장 먼저 공개된 'AI통화비서 바버샵' 편은 서울에서 바버샵(데테퍼룸)을 운영하는 곽한별(31)씨의 실제 스토리다. AI통화비서

가 365일 24시간 예약, 위치·주차 문의 등 고객 전화를 도맡아 처리해 곽씨가 손님 머리 손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반영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두 편의 광고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뷰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T는 앞으로도 AI와 로봇서비스를 통해 일터와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쉽게 해결하고 편리해진 사례를 고객 관점에서 솔직하게 보여줄 계획이다.

KT 전략기획실장 김재희 전무는 "KT의 AI와 로봇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따뜻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HMM, 올해 첫 임시선박 'HMM 홍콩' 출항

이달 22일 美 타코마 항 도착 예정

HMM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첫 임시 선박을 출항했다.

9일 HMM에 따르면 광양항에서 8일 출항한 임시선박인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홍콩(Hongkong)호'는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이달 22일에 미국 타코마(Tacoma)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HMM은 올해 처음 출항한 'HMM 홍콩(Hongkong)호' 외에도 'HMM 오클랜드(Oakland)호', 'SKY 레인보우(Rainbow)호', 'HMM 안트워프(Antwerp)호', 'HMM 울산(Ulsan)호' 등 이달에만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달 24일과 27일에 투입 예정인 'HMM 안트워프(Antwerp)호'와

'HMM 울산(Ulsan)호'는 다목적선 MPV(multi-purpose vessel) 선박으로, 미국 동안의 뉴욕으로 향하며 임시선박으로는 처음으로 휴스턴으로도 출항한다.

일반적으로 다목적선(MPVI)은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와 같은 초대형 특수 화물과 중량 화물을 운송하지만, 필요에 따라 컨테이너도 실을 수 있다. HMM은 전세계적인 선박난으로 인해 신규 선박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국내 화주와의 상생을 위해 기존 컨테이너선 이외에도 가용한 모든 선박을 동원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있다.

HMM 관계자는 "올해도 지속적인 임시선박 투입으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에 선복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표국적선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출기업들의 화물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